

## IV. 프랑스

□ FY 2007년 : 2007년 1월 ~ 2007년 12월

□ 출처 :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07

Les Chiffres clés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Les grandes lignes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07

[http://www.finances.gouv.fr/recherche/lance\\_recherche.php?mot=budget](http://www.finances.gouv.fr/recherche/lance_recherche.php?mot=budget)

[www.budget2007.gouv.fr](http://www.budget2007.gouv.fr)

<http://www.premier-ministre.gouv.fr/fr/>

[http://www.aft.gouv.fr/rubrique\\_535/index.html?id\\_rubrique=535&lbx=1](http://www.aft.gouv.fr/rubrique_535/index.html?id_rubrique=535&lbx=1)

[http://www.performance-publique.gouv.fr/cout\\_politique/loi\\_finances/2007/dossier\\_presse/chiffrescles2007.pdf](http://www.performance-publique.gouv.fr/cout_politique/loi_finances/2007/dossier_presse/chiffrescles2007.pdf)

□ 환율 : 1 EUR = 1199.04원 (2006년 평균)

### <요 약>

2007년 프랑스 경기는 2~2.5%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이는 실업률 감소로 인한 내수 경기 회복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프랑스 재정적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서 규정한 재정적자 규모 3% 이하를 2005년 이래로 올해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정부지출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2006년 대비 0.8% 증가) 누적재정적자와 국민부담률을 줄이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구

프랑스는 소득세감소정책, 부의 소득세율 개편정책, 중소기업지원정책 등을 통해 고용과 구매력을 통해 지속적인 내수경기 활성화를 추구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프랑스는 2001년 이래 처음으로 2005년에 재정적자를 GDP 대비 3%를 회복, 이를 2007년까지 유지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구

<표 IV-1>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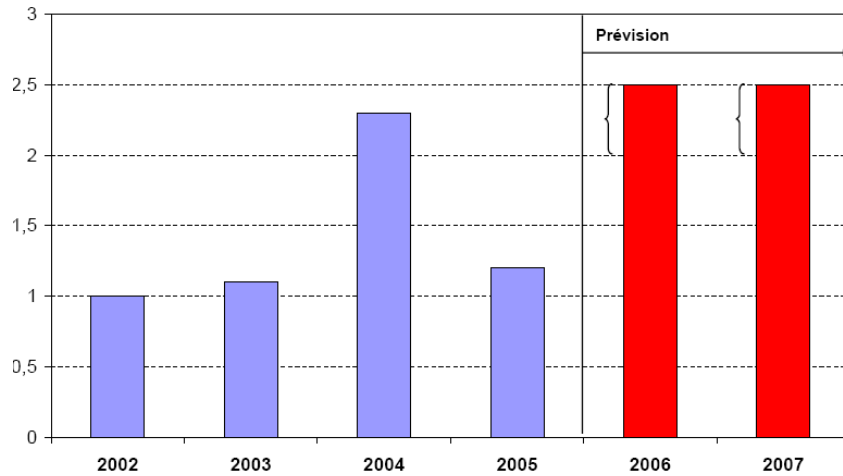
프랑스 경제	2005	2006	2007
GDP total (단위: 10억€)	1710	1783	1856
실질성장률	1.2	2.0~2.5	2.0~2.5
명목성장률	3.1	4.2	4.1
구매력 변화율	1.1	2.2	2.8
가계지출 증가율	2.1	2.8	2.8
기업투자 증가율	3.6	3.6	3.6
수출 증가율	3.1	7.9	6.2
수입 증가율	6.1	8.0	6.1
소비자물가 증가율			
담배제외(연평균)	1.7	1.8	1.8
담배포함(연평균)	1.8	1.8	1.8
무역수지 (단위: 10억€)	-22.8	-28.7	-30.1
재정수지(GDP대비비율)	-2.9	-2.7	-2.5

자료: Les chiffres clés 1 page

□ 프랑스 경제 상황 전망은 다소 긍정적

- 전반적으로 프랑스 경제는 2006-07년에는 2~2.5%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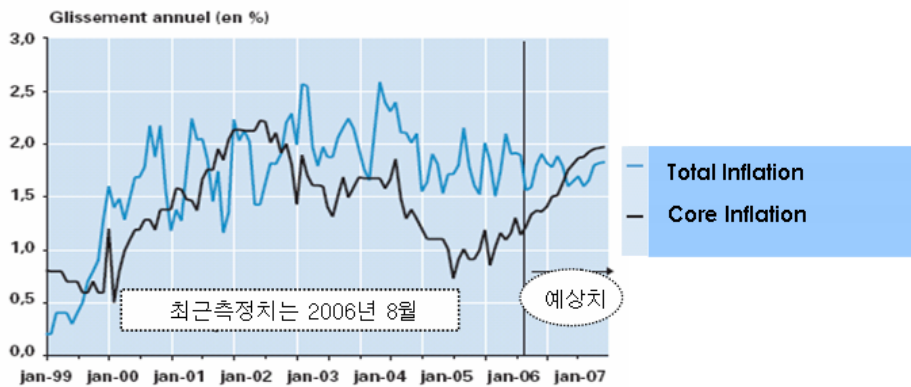
[그림 IV-1] 경제성장률 추이(%)(2006-07년은 예측치)



자료: [www.performance-publique.gouv.fr/cout\\_politique/loi\\_finances/2007/dossier\\_presse/orientations/presentation\\_plf.pdf](http://www.performance-publique.gouv.fr/cout_politique/loi_finances/2007/dossier_presse/orientations/presentation_plf.pdf)

- 인플레이션율은 2006년 8월에 1.9%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7년 하반기까지 계속되어 2007년 인플레이션율은 약 1.8%로 예상,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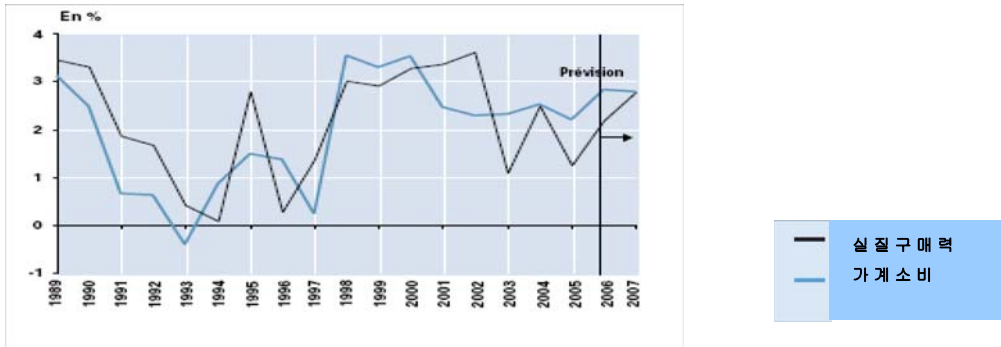
[그림 IV-2] 인플레이션율의 변화,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30 page

- 가계 부문
  - 가계소비 회복이 경기회복의 주요 원인
  - 실업률의 빠르고 지속적인 감소는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의 회복을 야기

[그림 IV-3] 연간 실질구매력과 가계소비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21page

- 2007년에는 소득세 개혁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고용에 대한 혜택과 노동시장 친화적인 변화로 인해 구매력은 2.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저축률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
- 2006-2007년에는 실질구매력의 회복이 가계 소비의 증가를 가져옴
- 가계의 부동산투자율은 2004-2005년에는 연평균 4% 이상의 증가율을 이어왔음. 이는 금리의 하락과 더불어 2003년 시행된<sup>4)</sup> “de Robin”이라는 제도로 기인한 것임, 하지만 이는 “Borloo Populaire” 라는 제도를 통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완화될 예정

<표 IV-2> 가계 관련 경제 지수

	2003	2004	2005	2006	2007
구매가처분소득/실질구매력(%)	0.9	2.2	1.1	2.2	2.8
가계소비지출(%), 연변화율	2.2	2.3	2.1	2.8	2.8
가계저축률-소득대비	15.8	15.8	14.9	14.4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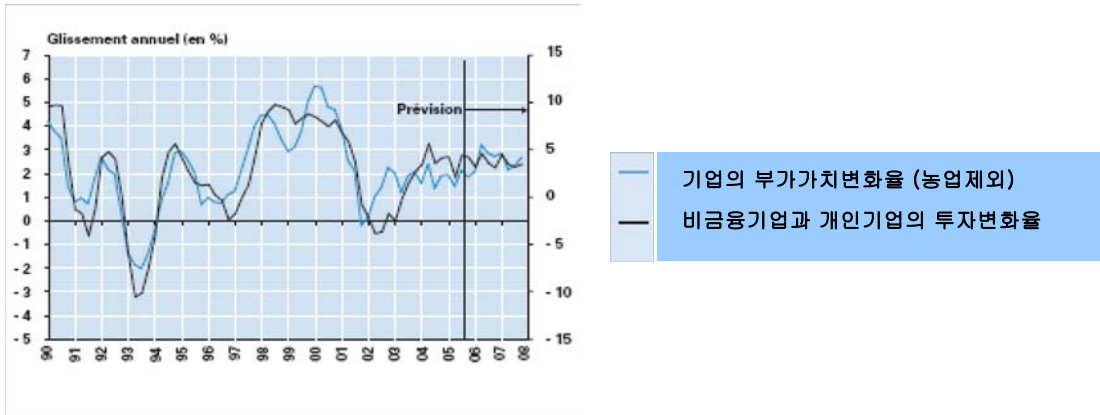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21page

○ 기업 부문

-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의 경기 회복 후에 기업들의 투자는 올해 3.5% 이상 증가 예상

4) 임대한 부동산을 임대자가 직접 구입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

[그림 IV-4] 기업총투자 관련 연간변화율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23page

- 2005년 여름 이후 2006년까지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세계경기로 인해 다소 둔화될 것임
- 2007년은 해외수출 감소 등의 둔화된 경제상황 속에서도 내수성장을 근간으로 기업은 200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정부 부문

- 경기의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강조. 이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긴급계획(Plan d'urgence pour l'emploi)을 통하여 약 25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 고용회복은 공공영역에서도 보조계약 (Contract aidés)의 발전에 의해 2006-2007년도에 동반될 것으로 예상

<Box IV-1> 소득세제 개혁

La réforme de l'impôt sur le revenu adoptée dans le cadre de la loi de finances pour 2006

source: <http://www.minefi.gouv.fr/presse/communiqués/c0701091.php>

2006년 소득세개혁은 2007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이를 통해 소득세율 체계를 단순화

- 세수체계 단순화 및 세율 인하(과표구간 7단계→ 5단계)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은폐가 힘들다는 가정 아래 기존의 10% 공제 외에 10% 추가공제를 해 주었음. 하지만 2006년 소득세 개혁에 의하면 이 외에 연금 및 자영업자의 소득에도 공제율 20%로 일원화하여 세율인하

세율 및 세율 결정방법

2006		2007	
0 ~ 4413 €	0 %	0 ~ 5614 €	0 %
4413 ~ 8677 €	6.83 %	5615~ 11198 €	5.5 %
8678 ~ 15274 €	19.14 %		
15275 ~ 24731 €	28.26 %	11199~ 24872 €	14 %
24732 ~ 40241 €	37.38 %	24873 ~ 66679 €	30%
40242 ~ 49624 €	42.64 %		
48625€ 이상	48.09 %	66679 € 이상	40%

## 나. 재정전망

정부부채를 줄이고 정부지출을 통제하면서 건전재정수지를 추구

<표 IV-3> 재정의 주요 수치

(단위:100만€)

	2006 (100만€)	2007 (100만€)	2007 (2006structure)
정부지출	266078	268300	39484
정부수입	217178	225900	228298
일반재정 수치	-48900	-42400	-40029
특별회계 재정수지	1953	309	309
총 재정수지	-46947	-42091	-39720
GDP대비%	-2.7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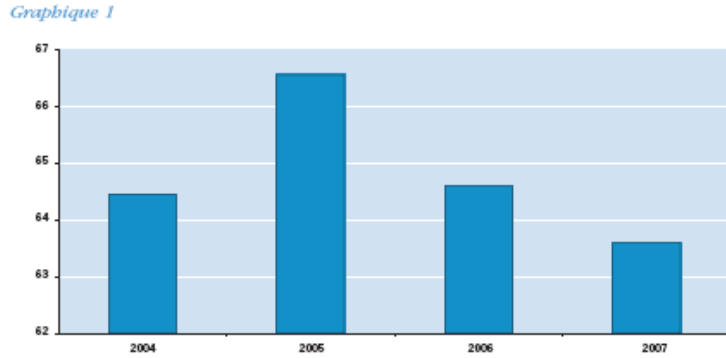
자료: Les chiffres clés와 LES FINANCES PUBLIQUES EN 2007을 조합해서 작성

### □ 재정수지(Capacité de financement des administrations publique)

- 2005년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적자가 Maastricht 조약에 의해 정해진 3% 이하로 낮아짐. 이 수치는 GDP의 2.9%에 해당
- 재정과 세입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인해 재정적자가 2006년은 GDP 대비 2.7%에서 2007년은 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누적국가부채(Dette Publique)

[그림 IV-5] 누적국가부채(GDP 대비 비율)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57page

- 누적국가부채는 2006년에는 GDP 대비 2% 감소에 이어 2007년에는 GDP 대비 1% 감소로 인해 GDP 대비 총 63.6%
- GDP 대비 누적부채비율이 2005년에는 66.6%, 2006년에는 64.6%, 2007년에는 63.6%로 감소추세

□ 정부수입 (Les Recettes)

<표 IV-4> 2006년, 2007년 예산 및 결산

(단위: 10억유로)

	2006년 예산	2006년 결산	2007년 예산	
정부지출	266.1	266.1	268.3	0.8% 증가율
조세수입	257.7	262.8	267.2	
기타정부수입	24.8	24.6	26.8	
EU와 지방정부 보조	-65.4	-65.9	-68.1	
정부수입(Total)	217.2	221.5	225.9	
일반재정수지	-48.9	-44.6	-42.4	
특별회계재정수지	2	2	0.3	
총재정수지	-46.9	-42.7	-42.1	

자료: Les Grands Lignes 8 page

- 2007년 세입 추계
  - 2007년 세입의 증가는 2006년 예산안에 비해 약 51억€ 증가하여 총 2,259억€
  - 2007년 예산안은 2006년의 조세개혁에 큰 영향, 특히 소득체제의 개선을 위해 법인세 절감, 부의 소득세 (PPL:la prime pour l'emploi)의 증가, 사업소득세(taxe professionnelle)가 그 주요 내용
  
- 기타수입
  - 기타수입은 268억€ 까지 증가, 이는 2006년 예산안보다 22억€ 증가하여 설정, 이는 2006년 공기업의 좋은 실적으로 인한 배당금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지자체 및 EU 이전 세입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한 세입의 이전은 494억€, 이는 2006년에 비해 약 13억€ 증가된 금액, 이는 성장과 공존을 위한 협정의 영향 아래 이루어짐
  - EU에 대한 이전금 역시 187억€, 이는 2006년에 비해 9억€ 증가된 금액
  
- 국민부담률(PO, Prélèvement Obligatoire)
  - 국민부담률은 2006년에 비해 0.3%(GDP 대비) 감소하여 GDP 대비 43.7%로 예상

(단위: 10억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1366.5	1441.4	1497.2	1548.6	1594.8	1659	1710	1782.6	1855.7
국민부담	614.2	636	655.7	667.8	683.3	715.8	752.3	784.4	811.7
국민부담률	44.9	44.1	43.8	43.1	42.8	43.1	44.0	44.0	43.7

Source: Competes nationaux-Base 2000

#### □ 정부지출 (Dépense Publique)

- 정부지출은 2,678억€ 으로 2006년 대비 0.8% 증가하였고 이는 인플레이션율보다 적은 증가율

- 공공지출에 대한 강화된 통제를 통해, 정부지출은 GDP 대비 0.5%까지 감소 가능할 것으로 전망(2006년: GDP 대비 14.9%, 2007년: GDP 대비 14.4%)
- 재정감사위원회(Conseil d'orientation des finances publiques)의 신설은 정부부처와 관계된 지출에 대해 보다 엄격한 통제를 할 것임

## 2. 예산기조 및 내용

- 2007년 예산은 인플레이션율(1.8%)보다 적은 0.8% 인상된 예산에서 정부 지출 통제

### <Box IV-1> 예산기본법 LOLF

2007년 예산은 2001년 8월에 발표된 la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LOLF)에 의해 다음의 3가지 목표를 추구

- 1)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추구
- 2) 실재가치로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고용증진, 미래에 대한 준비, 국가기능의 강화 등의 목표 실현
- 3) 2006년에 통과된 예산안(loi de finances initiale)에서 결정된 세제개혁을 수행하고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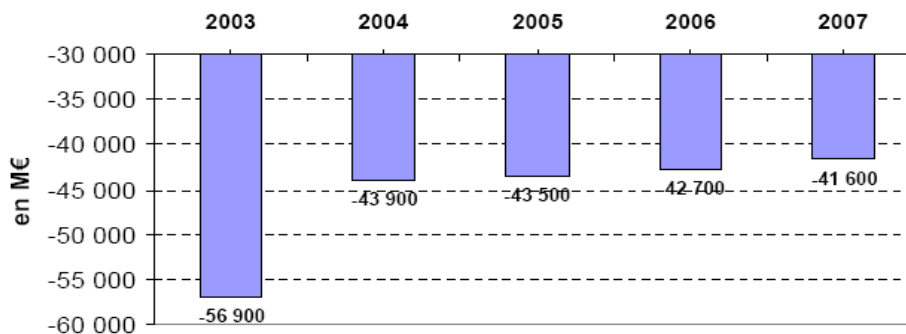
### 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적자 감소

#### □ 재정적자감소

- 재정적자는 2007년에 416€로 2006년 예산에 비해 11억€ 감소된 금액, 지난 4년 동안 150억€ 감소

[그림 IV-6] 재정적자 추이

(단위: 백만€)



자료: Les Grands Lignes 3page

## 나. 주요 예산 계획

- 고용의 증진과 기회의 평등에 대한 노력을 강화
  - 고용관련 예산은 사회적 통합과 1인 1서비스(service a la personne) 정책 목표 아래 집행 예정
  - 3천 2백억€의 중소기업지원을 통해 더욱 증진될 예정
  - 고용 관련 예산은 ANCSEC(사회적 통합과 기회의 평등을 위한 국가자문위원회:l'Agence nationale pour la cohesion sociale et l'egalite des chances)를 통해 집행을 용이하게 함
  
- 연구와 교육 투자를 통한 미래 대비
  - R&D에 10억€의 지원금을 지출할 예정
  - 연구소와 대학에서 약 2,000개의 일자리 창출 예정
  - 물류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계획
  
- 국가안보와 치안
  - 2007년 예산은 2002년 이래로 프랑스의 국가정의와 안보 등을 위해 국가고유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관련법이나 규칙들이 시행예정, 기조법(loi d'orientation)과 보안프로그램(programmation de la justice)에 근거하여 시행
  - 헌병과 경찰에 1,950명을 추가 고용
  - 국방 관련 예산은 2002년에 대비 33억€ 추가 지출
  
- 사회복지지출은 2006년과 유사하게 1.2% 증가 예정
  - 이러한 안정적인 증가율은 의료보험비용(ONDAM:l'Objectif national de dépenses d'assurance maladie)의 감소로부터 기인(2006년:2.7%. 2007년:2.5%)
  - 실업의 감소로 실업관련 비용의 감소(약 6% 감소)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퇴직자 연금 비용 증가 예정

- 2006년에 보건복지부(ASSO:les 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의 적자는 호전된 경기상황과 복지에 대한 지출을 통제 한 결과 감소

<표 IV-5> 보건복지부의 재정수지

	2005	2006	2007
ASSO재정수지(GDP대비비율)	-0.2	-0.4	-0.1
ASSO지출변화율	4.3%	3.0%	3.0%
세출변화율	4.8%	2.6%	3.2%
ASSO세수변화율	7.5%	2.1%	4.4%

자료: Rapport E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77 page

- 2007년에 보건복지부는 균형재정수지를 회복할 것으로 보임, 이는 지출에 대한 명확한 통제와 호전적인 경기상황으로 가능
- 보건복지부의 수입이 2007년에는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세금 징수의 원천인 소득이 2007년에 4.6% 증가한 것에 기인
- 복지혜택은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으로 2007년에는 3.2% 증가 전망, 2006년의 3.1% 증가율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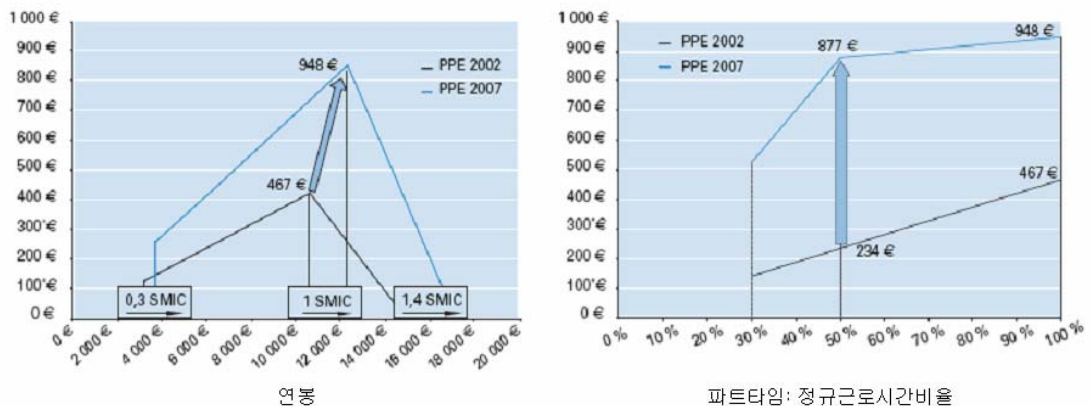
#### 다. 구매력, 사회정의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증가를 위한 조세정책

##### □ 구매력과 소비를 위한 지원정책

###### ○ 부의 소득세(la prime pour l'emploi)를 개편

- 1990년대 말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으로 취업이 감소하자,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
- 최저임금(SMIC: Salaire Minimum de croissance)의 증가와 더불어 2002년에 비해 2007년은 Full time의 경우 최대수혜액이 두 배 이상 증가 948€이고, Part time의 경우 정규시간의 50% 근무자는 643€ 증가된 금액인 877€를 지급받음

[그림 IV-7] 2002~2007년 정규직과 파트타임근로자 PPE



참고 : SMIC (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최저임금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99page

###### ○ 주식담보대출제도개편(Hypothèque Rechargeable, Refillable Mortgage)을 개편

- 가계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개인이 담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부동산대출제도 자체를 개편.
- 이전에는 프랑스 담보대출은 고정금리로 정해진 금액만을 보장함. 따라서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대출을 연장하거나 재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자료:[www.frenchtree.com](http://www.frenchtree.com))
- Hypothèque Rechargeable은 기존의 담보 대출에서 정해진 한도 안

에서 추가적인 담보 대출이 가능

- 무주택자를 위한 소득공제
  -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영세민들에게 주택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감면(1인당 3,000€ ~ 1,0000€의 혜택)
  - 빈번하게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

□ 기업경쟁력향상정책

- 중소기업 지원정책

<표 IV-6> 중소기업의 프랑스 경제 기여도

	임금노동자수	고용직원수 (단위: 백만명)	임금노동자수 (단위: 백만명)	부가가치비율 (단위: %)
소기업(TPE)	0~9	4.7	2.9	20.90%
	10~19	1.1	1.1	6.10%
	20~49	1.5	1.5	8.90%
중기업	50~249	1.3	1.3	6.90%
합계		8.6	6.8	42.90%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85 page

- 법인세, 순이익 부과세(IVFA; L'imposition forfaitaire annuelle)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세 혜택, 이는 신생 혁신 기업 (Jeunes Entreprises innovantes)들을 위하여 불필요한 조사 없이 즉각적인 감세혜택을 줌
- 중소기업을 위한 소득세에 대한 감면 정책은 2006년 12월 31일 발효되었으며 이는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
- 경제적 현실에 대한 적응
  - 최소한 기업가치 총액이 5억€ 이상인 기업들까지 법인세(l'impôt sur les societe)를 징수하도록 확대, 이전에는 기업가치 총액이 10억 € ~ 50억€ 사이의 기업들에게 해당되었음
  - 유가증권 관련 경비 세수체계 단순화. 모든 간접비는 유가증권가격에 포함.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10년 동안 점차 완화시킬 것임. 유가증권의 부가가치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일반 세금 체계로 변경